폭력과 범죄의 잔혹사

인간의 공격성 해부한 책들 잇달아 번역소개

중세 서양에서 행해진 화형식.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연구는 동물생태학, 사회생물학 등에서 많이 다루던 주제다. 콘라트 로렌츠는 그의 저서 「공격성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공격성은 종을 보존하려는 기능을 갖는다면서 인간이 지구를 점령한 것은 그만큼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공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본지 128호 "사람은 신의 후손이 아닌 야수의 아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잔혹성이 동물적인 유전인자에서 연유했든, 아니면 인간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든지 간에 그 나타나는 결과물은 말 그대로 "잔혹하다." 신문 사회면을 대충 훑어봐도 살인, 강간, 유괴, 납치 등의 사건이 빠지는 날이 없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구미는 물론 우리가 미개사회라고 부르는 사회에서도 이같은 사건은 수도 없이 일어난다. "사람 죽이기를 파리잡듯 하는" 살인마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있을 것이기에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사회학자들은, 사회발전과 범죄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류의 창조성이 문명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범죄도 촉진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지라르에 의하면, 현대에 와서 감금되거나 사형당하는 사람은 희생제의의 제물이며,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처형하는 희생제의도 분명히 '또 다른 폭력'이라는 것이다.

공격적인 인간의 잔혹성 나열

아직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서구에서는 한 '피흘림'의 사건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고 사회학,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조명하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을 보면 콜린 윌슨이 쓴, 범죄사를 다룬 「잔혹」과 살인의 양태를 다룬 「현대살인백과」(범우사), '또 다른 살인'이랄 수 있는 사형을 다룬 책 「세계 사형백과」(카를 부루노, 하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박문각), 인류학의 관점에서 폭력을 조명하고 있는 르네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민음사), 광기에 천착하면서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 미셸 푸코의 저서들이 번역서로 읽히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씌어진 이와 유사한 책으로는 한길사에서 펴낸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가난이 죄는 아닐진대 나에겐 죄가 되어 죽었습니다」(태일)를 비롯한 박삼중 스님의 여러 저서들이 있다.

이중에서 「잔혹」은 인류의 잔혹성 내지 살인성을 그리스 로마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사회에서 그 예증을 찾아 보여주고 있다. 윌슨은 인류의 역사를 범죄의 역사이자 창조의 역사라고 한다. 즉 사회발전과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류의 창조성이 문명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범죄성도 촉진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 때, 이 조종능력에 따라 인간은 최초의 참된 창조적이고도 발명적인 동물이 된다. 그는 분출하는 에너지를 발견과 탐구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 분출의 힘은 그것이 막혔을 때, 혹은 자기규율의 결여로 그 제어가 곤란해졌을 때 혼돈과 파괴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야말로 창조성이라는 동전의 이면이다."

같은 맥락에서 윌슨은 또 다른 저서 「현대살인백과」에서 "범죄가 인간의 의식을 닫는데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에서 그는 테러리즘으로 대표되는 '정치와 살인'의 관계를 비롯해서 사회병리, 정신이상, 성 등과 연관된 살인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제1장 '살인의 시대'에서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나, 그는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는 루소의 철학에 인명경시풍조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유의 철학에서 발생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윤리적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희생제의는 존재하는 폭력을 실제로 행한 것

사회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폭력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간 르네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민음사)에서 인류의 문화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짝패갈등(숙명적인 한계와도 같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력)에서 비롯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인류는 '희생제의'라는 문화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다. 즉 '희생제의'는, 신의 노여움을 풀고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설을 뒤엎고, 그 사회 내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폭력을 실제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연쇄적 복수를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방법들은 분명히 비슷한 것같다. 우리는 이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복수심이 희생제의를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인 예방조치이며, 두번째는 아직 치유효과는 완전치 않은 타협이나 결투재판과 같은 복수의 규제와 정리이며, 세번째는 그 치유효과가 가장 뛰어난 재판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재판에 의해 감금되거나 사형당하는 사람은 희생제의의 제물이며,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처형하는 희생제의도 분명히 '또 다른 폭력'이라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세계 사형백과」(카를 부루노, 하서)도 합법적인 살인에 대해 다룬다. 저자가 말하는 사형제도는, 일면에 있어서는 지라르의 책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말하는 희생제의의 개념과도 상통한다.

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처형방법은 그 이름만 봐도 인간의 야만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추방(고대사회에서는 사형과 같은 의미를 지녔음), 돌로 치기, 낭떠러지에서 떠밀기, 십자가와 책형, 교수형, 참수형, 차형, 사지찢기, 익살과 생매장, 분형 등이 고대에 주로 행해졌던 사형방식이라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기요틴, 교살, 전기의자, 가스실, 총살 등의 사형방식이 많이 쓰인다고 한다.

한편 미셸 푸코는 사형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감금에 초점을 맞추고 폭력과 함께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유린당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광기에 걸려 있다. 따라서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미쳤다는 것의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인간사랑) 서문에서 이와같은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화두로 광기에 휩싸인 17, 8세기 고전주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17세기에 일어난 대감금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면서, 당시 파리시 인구의 1%이상이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의 잔혹성이 팔리고 있다"

미셸 푸코는 또 다른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는 신체에 가해진 형벌들과 함께 감시처벌 기구의 철학적 사회학적 연원을 짚어내고 있다. 그는 특히 감시처벌기구에 가정, 학교, 군대, 병원, 공장 등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의 논리에 따르면 근대사회가 감금사회, 관리사회, 처벌사회, 감시사회로 이해되고 있다. 푸코는 여러 저서에서 광기에 대한 철학적 규정, 의학적 관행들, 광기의 감금에 대한 법률적 조치들, 나아가 광기에 관한 문학적 서술들과 광기·죽음·범죄·성 등의 경험과 권력의 여러 기술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서점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추리소설도 다른 동물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양들의 침묵'을 비롯한 영화도 살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현대인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성수 기자